

## {은채의 한국 유학 길을 응원하며...}

신명기 4 장 1 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일본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나리타중앙교회의 주일예배 설교는 신약의 데살로니가서를 마치고, 구약의 신명기를 강해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申命記, Deuteronomy)는 모세 5 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의 고별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광야를 4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새로운 리더로 세워져서 요단강을 건너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채가 일본에 2 살에 와서 유치원, 초중고를 졸업하고, 일본에 온지 17 년만에 한국으로 3 월 1 일 유학을 떠났습니다. 3 월 1 일 오전에 일본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3 월 2 일에 입사하고, 새로운 1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꼭 필요한 장학금을 몇 곳(바울선교회, 전주안디옥교회, 굿패밀리복지재단 등등)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등록금과 기숙사비도 잘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라도 은채에게는 새로운 나라에 유학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낯선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1. 일본은 지금.

-이번 겨울 일본 관동지방은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눈도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춘분인데, 오늘 3 월 19 일 오전에 3 시간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겨울 내내 볼 수 없었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아직은 춥지만, 여기 나리타도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곧 추위가 물러나고, 진짜 봄이 와서 벚꽃도 피어서, **꽃구경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한국도 벚꽃으로 유명한 명소가 많지만, 일본 도쿄 우에노공원의 벚꽃 축제는 너무 유명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회사의 신입 사원들이 파란 돗자리를 아침 일찍부터 펴놓고 자리를 잡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벚꽃 밑에서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 일본의 엔화가 싸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월급은 오르지 않고,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졌기에 생활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쌀값을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10 키로에 약 4,000 엔 했는데, 지금은 8,000 엔정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전기세와 계란, 과일, 야채, 공산품 등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2. 나리타중앙교회.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감사하게도 일본 사람 6 명이 지난해 10 월부터 예배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배에 열심히 모이기에, 더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약과 모세의 사명의 마지막을 깨달으며, 가나안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 4월부터 엘리트 스카이 일본어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교회 앞에 생기는 일본어학교로 미얀마, 네팔 등의 학생들이 2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하고 전문대에 진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월 8일 입학식을 하게 되고, 평일에 우리 교회 주차장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4-5명의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세워지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은채가 한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예배를 2월 23일 드렸습니다. 은채의 입교식과 5분 간증이 있었습니다. 은채의 환송회이기에 은채와 함께 했던 후배 동생들과 엄마들이 많이 참석해주었습니다. 30여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환송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맛있는 한식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먹고 늦게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호떡도 먹고, 오후 6시까지 웃음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지길 아쉬워하며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였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은채와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 은채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교회에서의 빈자리가 실감이 됩니다. 한국어예배 반주자로, 교회학교 보조교사로, 그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여러가지 사역을 했었는데, 유학을 가니,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빈자리들이 새로운 일꾼들로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8월 초에 제 4회 여름 유스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꿈의교회 청년부의 동역자들이 이번에도 수고 하게 되는데, 귀한 수고와 땀과 눈물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말에 코로나로 멈추었던 선교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주셔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3. 가정이야기.

-지난 2월 17-20일까지 제일감리교선교대회가 있어서 일본 오키나와에 다녀 왔습니다. 같은 일본이지만, 낮에 20도의 가까운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은혜받고 충전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은채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가족 여행으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할 것은 은채가 대학 오리엔테이션으로 한국에 갔다가 가방(여권, 지갑)을 일본으로 돌아오기 3일 전에 잃어 버렸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돌아 올 수 없었다면, 오키나와는 같이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경찰 지구대에서 가방을 그대로 찾을 수 있어서 예정대로 일본으로 돌아 왔고, 같이 오키나와까지 잘 다녀 왔습니다. 가방을 지구대에 신고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세식구가 계속 살다가, 은채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저희 부부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은채 생각에, 한번은 딸의 방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국 대학이라는 새로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딸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대학의 생활이 은채에게는 또 다른 광야라는 것이겠지요. 스스로 그 광야에서 경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비전과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광야의 훈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길 부모로써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영적 리더, 교수님,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채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제목

1. 하나님의 뜻에 늘 합한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2. 일본 선교를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3. 나리타중앙교회가 영적 숫적으로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4. 엘리트 스카이 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예배자로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5. 8월에 있을 제 4회 여름 유스캠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6. 10월 말에 선교바자회가 열릴 수 있는 협력교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7. 하나님이 은채의 한국 대학 생활을 통해서 비전과 사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8. 가족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2025년 3월 20일

일본 김태호, 박윤희, 은채 선교사 올림

연락처 : [kth0712@hanmail.net](mailto:kth0712@hanmail.net), 81-80-5096-9764, (인터넷)070-7428-9511.  
[younheepark24@gmail.com](mailto:younheepark24@gmail.com), 81-80-4373-9764.



(입교식의 5분 간증)



(은채 환송을 위해 온 동생들)



(재일감리교선교대회 오키나와)



(은채 졸업식)